

메시지 3

한 양 떼이자 아버지의 집인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목양하심

성경: 요 10:10-11, 15-17, 14:2-3

- I. 요한복음에 따르면, 생명이신 삼일 하나님은 교회를 산출하신다. 비록 ‘교회’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많은 구절들이 교회를 암시하고 있다 — 2:16-22, 3:26-30, 10:16, 11:52, 12:24, 14:2-3, 15:5, 17:11, 21-23.
- II.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으며, 그 결과 신성한 생명 안에서 한 양 떼와 한 목자가 있게 될 것이다 — 요 10:16.
- A.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 요 10:10-11.
- B.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위해 구속을 성취하시려고 자신의 인간 생명을 버리셨다. 이것은 그들이 그분의 신성한 생명을 함께 나누어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요 10:11, 15, 17.
- C.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풀밭이신 그분 자신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먹이심으로 우리를 목양하신다 — 요 10:9.
1. 목양의 일은 먹이는 일이다 — 마 9:36, 14:14-21.
 2. 풀밭은 양을 먹이는 장소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 요 10:9.
 - a. 오늘날 우리의 풀밭은 생명 주시는 영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다 — 요 11:25, 고전 15:45하.
 - b. 일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우리는 풀밭 안에서 생명의 풍성한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 D.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신성한 생명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내하시고, 지시하고 계신다 — 요 10:14, 27-30.
1. 주님은 속에서부터 생명 안에서 우리를 목양하신다.
 - a. 우리 안에는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계신다. 우리의 목자는 생명의 목자이시자 생명 안에 있는 목자이시다 — 요 10:10.
 - b. 우리의 목자이신 살아 계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시다 — 요 10:10, 11:25, 14:6, 골 3:4.
 2.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우리 안에 사심으로써 우리를 목양하신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사실상 그분께서 우리를 목양하시는 것이다.
- E.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목양하심 아래서 ‘한 목자 아래 한 양 떼’가 있게 될 것이다 — 요 10:16.
1. 한 양 떼는 주님의 영원하고 신성한 생명에 의해 산출된 한 교회, 곧 그리스도의 한 몸을 상징하며, 주님은 그분의 영원하고 신성한 생명을 그분의 죽음을 통해 그분의 지체들 안에 나누어 주셨다 — 요 10:16-18, 엡 2:14-16, 3:6.
 2. 주님은 그분의 목양하심 아래서 유대인 믿는 이들과 이방인 믿는 이들을 한 양 떼, 곧 한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셨다 — 요 10:10-18, 엡 2:14-16, 3:6.
 3. 주님의 양들은 신성한 생명을 영접했고, 이 신성한 생명에 의해 한 양 떼로서 함께 산다.
 4.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함께 무리 짓게 하신다 — 요 10:16, 눅 12:32, 행 20:28, 뱀전 5:2-3, 비교 사 40:11.
- F. 목양에 관한 장인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완성과 완결이다. 목양이 요한복음을 여는 열쇠이다.

1. 만일 우리가 목양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요한복음 전체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오직 다른 이들을 목양할 때에만, 우리는 내재적인 방식으로 요한복음을 알 수 있다 — 요 3:16, 4:10, 14, 10:9-18, 21:15-17.
2. 요한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보양하심으로써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에 관한 책이다. 다른 이들을 보살피는 것은 그들을 행복하고 유쾌하고 편안하게 하는 것이며 (마 9:10, 눅 7:34), 다른 이들을 보양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먹이는 것이다(마 24:45-47).
3. 부활 이후에 주님은 사도들의 사역을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합병시켜 하나님의 양 떼인 교회를 돌보게 하셨으며,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귀결된다 — 요 21:15-17.

III. 주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을 위해 생명 안에서 우리를 목양하고 계신다. 아버지의 집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과 그분께서 구속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키신 선민으로 이루어진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합병체이다 — 요 14:2-3.

- A. 우리는 요한복음에 계시된 대로 생명과 건축을 보아야 한다.
 1. 생명은 건축을 위해 있고, 건축은 생명에 속한다 — 요 11:25, 14:2.
 2. 요한복음은 삼일 하나님께서 생명이신 그분 자신을 그분의 믿는 이들 안으로 분배하고 계시며, 이러한 분배의 결과로서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건축물, 곧 하나님의 확장과 확대와 단체적인 표현이 된다는 것을 계시해 준다 — 요 1:4, 10:10하, 11:25, 14:2-3, 6.
- B. 부활 안에서 주 예수님은 더 큰 규모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단체적인 성전, 곧 그리스도의 비밀한 몸이 되게 하셨다 — 요 2:19-22.
 1. 십자가에서 허물어진 예수님의 몸인 성전은 작고 연약했지만, 부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은 광대하고 강력하다 — 고전 3:16-17, 엡 1:22-23.
 2. 부활의 날 이후로 주 예수님은 부활 생명 안에서 그분의 몸을 확대해 오고 계신다. 그분은 부활의 과정 아래서 그분의 몸을 건축하시기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 요 2:19-22.
 3. 부활이요 생명(요 11:25)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시기 위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생활은 그리스도의 비밀한 몸을 건축하기 위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생활이다 — 요 2:1-21.
- C. 아버지의 집은 삼일 하나님께서 육체 되심과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분 자신을 믿는 이들 안에 일해 넣으심으로 그들과 완전히 연합되시어, 그들을 그분의 거처와 표현을 위한 유기체로 건축하시는 문제이다 — 요 14:2-3, 23.
 1. 주님의 오심은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끌어 오셨고, 주님의 가심은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끌어 가셨다. 이렇게 오고 감을 통하여 주님은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건축하심으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신다 — 요 1:14, 10:10하, 14:2-3.
 2.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유기체인 교회를 건축하고 계신다. 이 교회는 삼일 하나님과 그분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사람들의 연합으로 산출된 그리스도의 몸이자 아버지의 집이다 — 요 14:7-24.
 3. 아버지의 집은 세 단계가 있는데, 바로 육체 되신 하나님의 단계,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믿는 이들이 함께 교회로 건축되는 단계, 새 예루살렘인 완결 단계이다 — 요 2:19-21, 계 21:2-3, 9-10.